

한국적 창의성과 창의적 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암묵적 이론*

성은현 한순미 하주현 이정규 류형선 한운영 박병기
호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양대학교 교육개발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적 창의성 개념과 대학생들이 창의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창의성의 저해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창의적 인물의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암묵적 생각을 탐색하였다. 한국적 창의성은 융통/응용/변환, 독창성, 꾸준한 노력, 타고정관념, 예술 심미 선호, 은고지신을 포함하였다. 대학생들은 스스로 창의성을 보통 이상(M=3.2)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이,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창의성을 더 많이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창의성 저해요인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융통성 없는 사회풍토를 포함하는 사회제도적 요인들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대학생들은 한국의 창의적인 인물들이 가난한 가정환경과 부유한 가정환경이라는 극단적인 경제 환경을 가졌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화목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지지받는 가정 분위기를 가졌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생활 및 환경에 대해서는 창의적 인물들이 학교교육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했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교우관계는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본 연구는 한국적 창의성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탐색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어 : 한국적 창의성, 암묵적 이론, 가정환경, 학교환경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6-321-B00116)

† 교신저자 : 성은현, 호서대학교
E-mail : ehsung@hoseo.edu

문제 제기

지금까지 창의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학자들 역시 서구 학자들의 창의성에 대한 개념화 방식을 따라왔다고 할 수 있다. 창의성 관련 연구들을 접해보면 개인주의, 자유주의 문화인 서양문화가 동양 문화보다 개인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유리한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동양의 유교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가 서양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문화에 비해 창의성을 촉진시키지 않으며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에 비해 창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양의 가정과 학교 환경이 동양의 그것보다 창의성을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Kyung Hee Kim, 2005; Ng, 2003; Rudowicz & Yue, 2002; Runco & Johnson, 2002).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따르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인들이 미국을 위시한 서양인들에 비해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열등하다는데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축적된 동서양의 문화유산을 비교해 볼 때 동양이 서양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2004년 12월 7일에 발표된, OECD 40개국의 만 15세 학생 28만명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에서의 학업성취도를 평가(PISA)한 결과,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영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모든 영역에서 10위권에 진입(특히 한국은 3위권 내에 있음)하였다. 문제해결력과 수학 및

과학에서 동양권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가 서구권에 비해 우수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의성이 서양에 비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게 한다. 셋째, 최근 한국이 IT 강국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의성이 미국을 위시한 서구권 사람들의 창의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게 한다(성은현, 2006a).

그렇다면 이렇게 창의성에 불리하다 여겨지는 동양 문화권에서 나온 창의적 업적들이 창의성에 유리한 문화를 가진 서양의 그것들보다 열등하지 않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은현(2006b)은 이에 대해 그림 1과 같이 동서양의 창의성 개념의 공통된 부분과 함께 동양과 서양 각각의 독특한 부분이 있고, 동양의 독특한 창의성 부분은 동양권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더 잘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창의성 연구는 서양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서양적 창의성의 개념으로 볼 때 창의성 발현에 서양문화가 더 적합하게 여겨졌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듯 최근 몇몇 학자들 (Sternberg 등, 2002; Lubart, 2003; Rudowicz, 2003)은 서양의 창의성이 독창성과 개성의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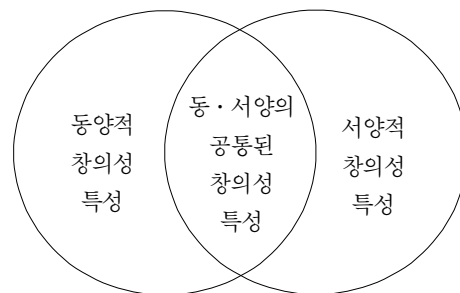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와 창의성 모형

구라면 동양의 창의성은 기존 사회문화적 체계에서 수정과 적응의 창의성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Lubart(2003)에 의하면, 동양과 서양의 창의성 개념은 서로 다른데, 동양의 창의성은 자신의 심오한 표현, 궁극적인 실제, 물체의 진정한 본성을 탐구하는 것과 관련되고, 전통적인 것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순환을 통해 나타나는데 비해, 서양의 창의성은 많고 다양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통해 만족할만한 새로운 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서양의 창의성에 대한 생각은 성은현, 하주현, 류형선, 한순미, 이정규, 한윤영(2007)의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개념 비교 연구에서 일부 검증되었다. 성은현 등(2007)은 Rodes의 4P(창의적 산출물, 창의적 과정, 창의적 인간, 창의적 환경)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적 창의성을 그림 2와 같이 정의하고, 한국인과 미국인의 창의적 특성을 그림 3과 같이 공통부분과 고유한 구분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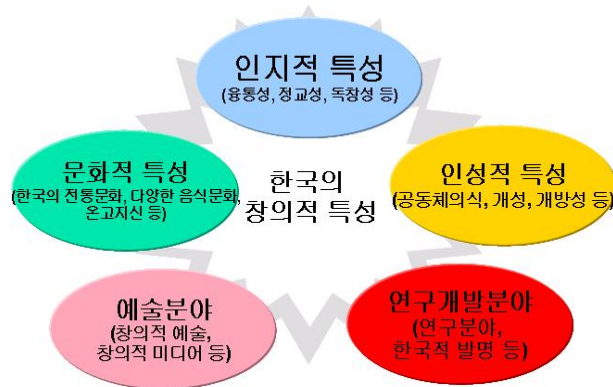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창의적 특성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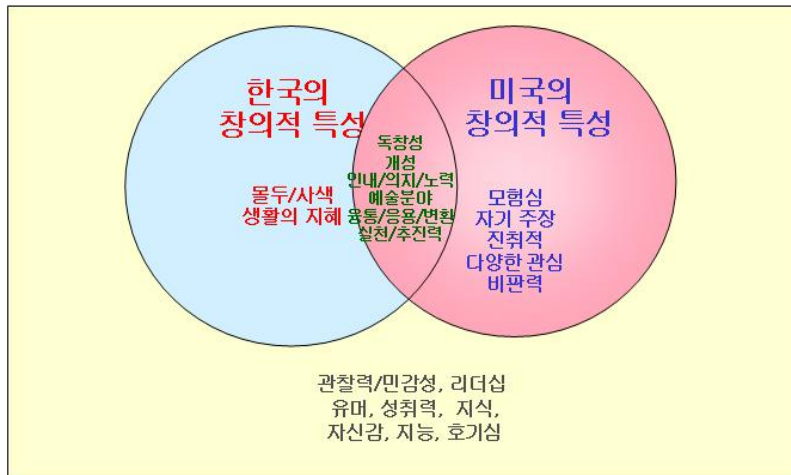


그림 3. 한국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인과 미국인의 창의적 특성

성은현 등(2007)이 발견한 전통 문화, 몰두/사색, 생활의 지혜 등 한국의 창의적 특성은 앞서 Lubart(2003)가 동양의 창의성을 두고 언급한 자신의 심오한 표현, 궁극적인 실제, 물체의 진정한 본성을 탐구하는 것과 관련되고, 전통적인 것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순환을 통해 나타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은현 등의 연구에서는 질문이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여 창의적 특성을 언급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한국적 창의성의 특성이 미국의 창의성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고 창의성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창의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적 창의성의 암묵적 이론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지, 대학생들이 생각할 때 우리사회에서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의 창의적인 인물을 세 명 선정하여 그들의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은 어떠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창의적 환경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이미 발표된 서양 위주의 창의적 환경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점에서 일치하지 않은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적 창의성의 암묵적 이론을 정립하고 한국 대학생들의 창의성 발휘 정도와 저해 요인을 진단하며 한국의 창의적 환경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정리하는 하나의 탐색적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진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

적 창의성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스스로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의 저해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가정환경은 어떠한가?

다섯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학교환경은 어떠한가?

이론적 배경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암묵적 창의성 이론(implicit theory of creativity)은 개인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창의성의 구인으로서, 형식적이지 않으며 질문과 추론을 통해 발견되거나 행동에 의해 그 모습이 밝혀지는 특성을 지닌다(Sternberg & Lubart, 1996). 명시적 창의성이론이 창의적 행동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심리학자들이 문헌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론이라 한다면 암묵적 이론은 체계적인 검증 과정 없이 개개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구인이라 할 수 있다.

암묵적 이론에 대한 이해는 사회의 사고를 주도하는 공통의 문화적 견해를 공식화하고 명시적 이론의 토대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Sternberg(1985)는 명시적 이론이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구인에 대해 정의내리지 못할 때 명시적 이론 발전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데 있어 암묵적 이론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들(Sternberg 등, 2002; Lubart, 2003; Rudowicz, 2003; Runco & Johnson, 2002)을 받아들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적 창의성의 암묵적 개념과 한국의 창의적 인물들의 가정, 학교 환경에 대한 암묵적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창의성과 가정환경

창의적인 사람들의 가정환경을 연구한 Dacey와 Lennon(1998)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환경이 자녀의 창의성을 결정하는데 유전적 요소에 비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의적인 자녀들의 부모는 양육적인 부모로서 자녀의 가치 확립에 모델이 되어 주었고, 자녀들이 높은 창의성을 표출해낼 때 부모들은 기뻐했고 많은 걱리를 하였다. 대부분의 부모가 일과는 별도의 취미생활이 있었으며 자녀와 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창의성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가정환경간의 관계를 살펴본 Gardner와 Moran(1990)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높은 창의성 점수를 가진 학생은 융통성이 높은 가정에서 나왔고 가장 낮은 창의성 점수를 가진 학생은 엄격한 가정에서 나왔다. 융통성이 높은 가정에서는 실수에 대해 자녀들이 배우는 과정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Michel과 Dudek(1991)의 연구에서 창의성이 높은 자녀들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를 격려하는 어머니들이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참견은 독립심과 호기심을 기르기보다는 창의성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Winner(1996)도 자녀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자녀들에게 이탈, 우울증, 분노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성공적인 발명가 65명을 대상으로 한 Mendecka(1996)의 연구에서 발명가의 부모들은 발명가가 어릴 때 협조적이었고, 사랑과 높은 기대를 보여주면서 자녀의 자율성과 주관성을 존중하였다.

Grzeskowiak(1996)은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면 가할수록 자녀들이 독립심과 호기심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엄격한 어머니를 둔 자녀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통제와 발달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밝혀졌다. 너무 적거나 과도한 통제가 발달을 제한시킨다는 것이다. Amabile(1989)은 자녀의 창의적인 성향에 부모가 모델이 됨을 강조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로서 자유, 존경, 정서적인 친밀감, 규칙보다는 가치, 점수보다는 성취, 창의성에 대한 평가, 부모들의 동참, 미래에 대한 비전, 유머를 들었다.

Dacey와 Packer(1992)는 창의적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녀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부모의 유형은 자녀의 공정함과 좋은 판단에 믿음을 보여주고, 자녀의 생각, 느낌,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녀의 흥미와 목표를 지원하고, 자녀의 친구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자녀가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에게서 받는 상처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부모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환경은 자녀의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부모 자신이 가치 확립의 모델이 되어주고, 자녀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때 격려하며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부모가 자녀의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반해, 과도한 참견을 하면서

자녀를 통제하려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호기심과 독립심은 낮아지고 오히려 우울이나 분노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연구결과들은 제시하고 있다.

창의성과 학교환경

Dacey와 Lennon(1998)의 연구에 의하면 창의적인 부모와 자녀들은 대부분 학교가 그들의 창의성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 Sternberg와 Lubart(1995)는 학교교육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 아이들의 창의성을 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위협스러운 일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며 창의적인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Torrance(1995)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격려하거나 인지하는 교사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창의적인 교사는 발견, 위험감수, 집착력,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같은 일에 몰두해야 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어서 회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Torrance(1968)는 “4학년 슬럼프”를 이야기하면서 학교 친구 또한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이 시기는 다른 친구들에게 적응해야 하는 압박이 시작되면서 창의성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Amabile(1989, 1996)도 주위의 압박이 도전하려는 의지를 억제시키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또 Hallman(1967)에 의하면 학교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어 창의성을 방해한다고 한다. 이러한 장애물들로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에 순응하도록 압력을 받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유머는 무시되며, 외적 보상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 등이다.

Sternberg와 Grigorenko(1997)의 연구에 의하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엉뚱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권위적인 교사에게 지적당하거나 문제아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 John-Steiner(1997)는 학교가 언어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며, 학생이 교사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는 식의 교수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학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그는 여러 저명한 발명가들이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미국의 학교교육에 비해 창의성 측면에서 더 불리하다고 지적하는 연구들(Kim, 2005; Kim & Michael, 1995; Wollam, 1992)이 있다. 미국의 아동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아동들은 교실에서 더 적게 말하고 상호작용 학습을 덜 하게 되며, 토론의 기회를 제한받고 지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심화 활동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학업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에게는 반복하고, 암기하고, 교과서 정보를 기억할 것이 요구된다(Kim, 2005; Wollam, 1992). 우리의 교육이 점차 변화되어가고 있긴 하나 교육정책 및 학교 행정 체제가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융통성을 허용하고 학생들에게도 창의적이 되도록 격려하는 보다 개방된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표 1과 같이 서울, 경기, 충청

표 1. 설문응답자 성별, 계열별 현황

구 분		빈 도	%
성별	남	130	28
	여	335	72
계열	인문계열	252	54.2
	이공계열	82	17.6
	예능계열	131	28.2
합 계		465	100

지역 소재의 4년제 대학교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능계열 남녀대학생 465명이다.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설문에 좋은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창의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예리하고 참신하게 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 점에서 대학생들은 인지적으로 성숙하고,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우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본 연구의 적합한 연구대상이라고 판단되었다.

도구

대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개방형 질문을 하고 다중응답하게 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한국적 창의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요?”, “당신은 창의성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사회에서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창의적 인물 3인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여) 그들의 가정환경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학교환경은 어떠했을까요?”이다. “당신은 창의성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

표 2. 응답현황

질문내용	반응수
한국적 창의성	283
창의성의 저해 요인	536
창의적인 사람들의 가정환경	1090
창의적인 사람들의 학교환경	716
합계	2625

은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당신은 창의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문항에 대한 응답은 “① 전혀 발휘하지 않는다” 부터 “⑤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현황은 표 2와 같다.

자료처리

먼저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진술문을 동일한 내용의 특성들끼리 묶어 범주화 하였고, 빈도수로 정리하였다. 모든 표에 빈도수가 전체 1.0%이상 차지하는 것들을 구체적 진술내용과 함께 제시하였다. “당신은 창의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

답은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하였고 전공계열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하고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적 창의성

“한국적 창의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을 순위별로 나열하면 표 3과 같다.

한국적 창의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통을 현대화 시키고 재창조하는 “온고지신”으로 응답한 사람이 1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독창성(11.3%), 인내/의지/노력(9.5%), 억압(8.1%), 융통/응용/변환(7.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특이한 발견 중 하나는 한국적 창의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는 질문에 창의성을 막는 교육/사회적 요인들(주로 주입식 교육, 평준화 교육, 창의성을 무시하는 교육적 요인들과 고착된 사회분위기, 관료주의 성향, 경직된 사회 분위기, 개방성 부족 등의 사회적 요인들)을 언급하며 “창의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응답(8.1%)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창의성 발현에 부정적인 우리나라 사회제도를 대학생들이 많이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모방하여 한국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한국적 창의성이라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는 “남과 다른 독창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창의성 개념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반응이라 생각된다. 그 외에 탈고정관념(4.9%), 개성(3.5%), 창의적 예술(2.8%), 생활의 지혜(2.5%) 등의 응답이 있었다.

대학생의 창의성 발휘 정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스스로 창의성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체로 자신의 창의성을 “보통” 이상(M=3.2)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계열별 혹은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ANOVA 및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각각 표 4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창의성을 더 많이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5를 통해 계열별(인문계열, 이공계열, 예능계열) 학생들 사이에 자신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이와 같이 변량분석에서 나타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열 집단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지 알아보기로 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즉, 예능계열 집단이 인문계열 집단, 이공계열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하였다(p<.001). 인문계열 집단과 이공계열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창의성의 저해요인

우리사회에서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순위별로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창의성을 저해하는 환경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교육제도의 문제(25.9%)로 지적되었다. 교육제도의 문제로 언급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입시위주교육, 획일화된

표 3. 한국적 창의성의 주요 범주 및 빈도

순위	범주명	구체적 진술 내용	n	%
1	온고지신	전통의 현대화, 전통을 기본으로 하는 창조, 옛것과 현대의 조화와 결합, 옛것을 지키며 더 좋은 것으로 계승 등 과거와 현재의 결합.	47	16.6
2	독창성	무에서 유를 창조, 아이디어, 기발하고 새로운 발상, 남들과 다른 생각	32	11.3
3	인내/의지/노력	끈질긴 저력, 끈기, 성실 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태도	27	9.5
4	억압	주입식 교육, 평준화 교육, 창의성을 무시하는 교육적 요인들과 고착된 사회 분위기, 관료주의 성향, 경직된 사회 분위기, 개방성 부족 등의 사회적 요인	23	8.1
5	융통/융용/ 변환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변형, 동양과 서양의 것을 결합 등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변형, 결합, 응용을 포함.	22	7.8
6	탈고정 관념	다른 것을 쉽게 받아들여 우리만의 것으로 새롭게 창조시킨 것,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는 능력과 그 사고방식 등 틀을 깨는 사고	14	4.9
7	모방	모방을 통해 한국에 맞게 적응시키는 능력 등 모방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	12	4.2
8	개성	자신의 색깔을 추구, 다양성 선호, 보편성 속에서의 독특함, 질제 속의 자율성 등 개인의 독특함.	10	3.5
9	창의적 예술	예술과 학문의 복합성, 단아함 속의 멋스러움, 다채로운 색감을 포함하는 예술, 수공예의 아름다움 등 예술분야에서 표현될 수 있는 내용	8	2.8
10	생활의 지혜	실용성, 실생활과 관련된 편리한 물품 등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	7	2.5
11	지능	대단한 암기력, 소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 빠른 두뇌회전 등 인지능력과 관련된 요소들	7	2.5
12	자기주장	고집, 외골수, 당당함 등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	6	2.1
13	모험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 남이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 의식.	4	1.4
14	사회제도	경제(자본), 복지, 정치 등 사회를 운영함에 필요한 요소들	4	1.4
15	애국심	개인적이기 보다 다수를 위한 일,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단합과 위상 등 국가적 차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4	1.4
16	자연친화	자연에 기인한 무한한 도전, 자연과 사람의 조화 속에 이루어진 모든 요소들	4	1.4
17	관찰력/민감성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 세심한 부분까지 관찰하고 찾아내는 능력	3	1.1
18	상품화	벤치마킹, 대중화를 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3	1.1
19	즉흥적/충동적	빨리빨리 문화, 순간적인 판단이나 기질.	3	1.1
20	기타	정교성, 독자성, 몰두/사색, 추진력, 호기심, 경쟁 등	43	15.2
소계			283	100.0

표 4. 성별에 따른 창의성 발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남	123	3.43	1.02	3.04**
여	310	3.10	1.01	
전체	433	3.2	1.02	

**p<.01

표 5. 계열에 따른 창의성 발휘에 대한 ANOVA

	변량원	SS	DF	MS	F
창의성발휘	집단간	14.029	2	7.015	6.10***
	집단내	435.637	429	1.015	
	전체	449.667	431		

***p<.001

표 6. 계열에 따른 창의성 발휘에 대한 사후검증

	계열	인원	평균	표준편차	Scheffe
창의성발휘	인문	238	3.09	1.03	예능>인문, 이공
	이공	78	3.06	1.04	
	예능	116	3.49	.95	

교육, 주입식 교육, 개성 경시교육, 교육환경, 암기식 교육, 수직적 교육, 반복학습, 수능교육제도, 수동적 교육, 체험학습부족, 다양성과 자율성을 통제하는 교육 등으로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그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억압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융통성 없이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고정관념이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하였으며(11.8%), 격식과 형식에 얽매이고 타인을 의식하는 분위기(9.9%), 규칙과 순응을 강조하는 분위기(8.8%),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5.2%), 경제적인 어려

움(4.9%) 등이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놀기 좋아하고 어려운 것을 피하는 노력부족(4.7%), 획일화된 사회(4.3%), 비평등성(3.9%), 보수주위와 관습강조(3.5%), 우유부단함 등의 자신감 부족(3.2%), 창의성을 엉뚱하다고 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2.8%)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주로 능력과 개인적인 측면보다 사회제도적인 측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7. 창의성의 저해요인 범주 및 빈도

순위	범주명	구체적 진술 내용	n	%
1	교육제도의 문제	입시위주교육, 획일화된 교육, 주입식 교육, 개성 경시교육, 교육환경, 암기식 교육, 수직적 교육, 반복학습, 교육제도, 수동적 교육, 체협학습부족, 다양성과 자율성 통제교육	139	25.9
2	고정관념	틀에 박힌 사고, 변화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63	11.8
3	타인의식/격식/형식	남들의 시선 의식, 체면, 눈치, 이목, 주위시선	53	9.9
4	규칙/순응강조	제한적, 반복적, 습관적, 일상적, 사회 규범적, 사회적 질서중시, 계획적, 틀에 박힌 생활	50	8.8
5	창의성발휘 기회부족	창의성을 발휘할 장소, 시간, 공간이 부족, 창의적 사고를 경시하는 사회풍토	28	5.2
6	경제강조/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본의 부족, 집안사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기회 부족	26	4.9
7	노력부족	게으름, 귀찮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독서를 경시, 놀이문화	25	4.7
8	획일화된 사회	대중매체, 문학, 군대, 비유동적 사회구조, 치열한 경쟁사회, 제도와 규범	23	4.3
9	비평등성	남성우월주의, 수직 관계강조, 권위적인 관계, 성별, 나이, 학력의 차별, 순종적인 부모자녀관계	21	3.9
10	보수주의/관습강조	전통강조, 사회 관습, 한국사회의 보수성, 안정추구	19	3.5
11	자신감결여	소심한 성격, 우유부단함, 표절, 자기확신 부족,	15	3.2
12	창의성에 대한 부정적사고	튀는 것을 꺼려하는 한국사회 풍조, 창의적 사고는 엉뚱한 사고나 헛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10	2.8
13	주변의 기대감	교사, 가족, 친구들의 기대심리, 주변의 압력	5	1.9
14	기타	학벌위주의 사회, 지식 부족, 주변환경 열악, 독서부족, 미디어 중시	99	8.8
소계			536	100.0

창의적 인물의 가정환경

‘한국의 창의적 인물을 3명 상정하고 그들의 가정환경은 어떠했을까’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응답부터 순서대로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의 내용을 살펴볼 때 크게 세 가지 범주, 즉 가정 경제 여건과 관련된 범주, 가정

분위기와 관련된 범주, 자녀 교육의 주안점과 관련된 범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분석이 가능하였다(그림 4-1, 4-2, 4-3 참고).

가정의 경제 여건과 관련하여 시련과 고난 그리고 빈곤과 관련된 진술을 포함한 ‘가난한 가정’ 범주가 가장 많은 빈도수(15.2%)를 나타내었다. 그 뒤를 이어 부유하고 유복하여 교육을 잘 받은 가정과 관련된 진술문을 포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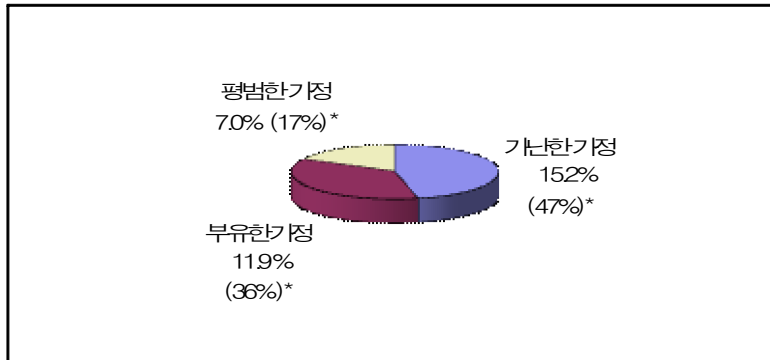
표 8. 창의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환경 범주 및 빈도

순위	범주	구체적 진술 내용	N	%
1	가난한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 넉넉하지 못한 가정, 불우한 가정, 유복하지 못한 가정	166	15.2
2	부유한 가정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 부유층,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유로운 경제적 수준	130	11.9
3	화목한 분위기	믿음과 신뢰가 있는 가정, 부모님의 자상함, 대화의 풍부함, 의사소통 활발, 웃음이 많은 가정, 즐겁고 평온한 가정	102	9.4
4	민주적인 분위기	강압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분위기, 권위적이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주는 가정 분위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분위기	94	8.6
5	자유로운 분위기	계약,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 밝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허용되며 개방적인 분위기	94	8.6
6	지지	자녀를 적극 밀어주며, 격려와 칭찬이 많으며, 심리적, 물리적 지원이 풍부함,	84	7.7
7	다양한 경험제공	다양한 직접적, 간접적 체험, 여행, 많은 자료, 새로운 문화 접촉, 다양한 체험,	63	5.8
8	평범한 가정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가정환경,	76	7.0
9	자립심 강조	스스로 학습 중시, 독립심, 도전정신 장려, 자기주도적, 자기개발 중시, 책임성 강조	59	5.4
10	자녀의 모델	부모의 훌륭한 성품, 우수한 지능, 태도의 영향, 부모의 독특한 교육방식	27	2.5
11	독서 강조	책이 풍부, 다독, 정독	24	2.2
12	권위적인 분위기	강압적인 분위기, 엄격한 가정 분위기, 예절 중시,	20	1.8
13	학업부담주지않기	학업에 대한 압박이 없으며, 학업만을 강요하지 않음,	15	1.4
14	높은 교육열	조기교육, 유학, 명문대 졸업, 부모의 높은 학력	13	1.2
15	많은 형제	형제, 친척 등 가족이 많음	12	1.1
16	기타의견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 왕따, 결손가정, 방임적인 분위기 등 기타	111	10.2
소계			10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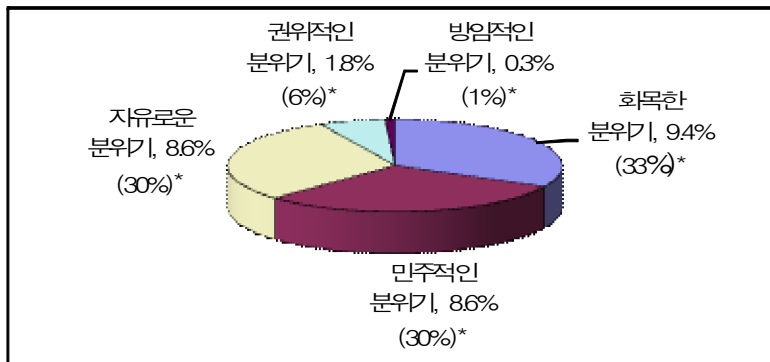
‘부유한 가정’(11.9%) 이라는 상반된 범주가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평범한 가정도 7.0% 있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범주 다음

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가정의 분위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족 간의 빈번한 대화와 화목함,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의 내용을 포함한 ‘화목한 분위기’(9.4%), 상호존중과



로 환산한 백분율



로 환산한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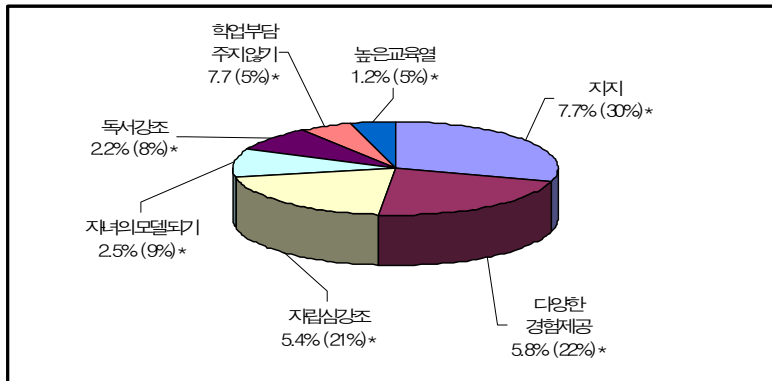


그림 4-3. 자녀교육의 주안점 관련 범주

(*) : 자녀교육의 주안점 관련범주의 합을 100%로 환산한 백분율

개방적이며 수용적인 분위기의 내용을 포함하는 ‘민주적인 분위기’(8.6%), 억압적이지 않은 자유의 제공, 틀에 박히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분위기’(8.6%) 범주가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분위기와 관련된 범주로 ‘권위적인 분위기’(1.8%)와 ‘방임적인 분위기’(0.3%)

범주도 있었지만 앞의 긍정적인 가정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적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이 외에도 자녀교육에 주안점을 둔 내용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가족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의미하는 ‘지지’(7.7%), 다양한 경험

표 9. 창의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학교생활 및 환경 범주 및 빈도

순위	범주	구체적 진술 내용	N	%
1	부적응	학교활동에 비참여, 학교수업 거부, 문제아, 사고, 반항적, 학교생활 싫증, 잦은 싸움,	70	9.9
2	긍정적 교우관계	많은 친구, 좋은 대인관계, 타인에 대한 배려, 원만한 교우관계, 활발, 명랑한 성격	65	9.2
3	틀에 박힌 내용 및 방법	틀에 박힌 교육내용, 주입식 교육, 현재와 비슷한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	54	7.6
4	독학	중퇴, 자퇴, 학교의 배움보다 스스로 학습을 선호, 자기주도적 학습,	42	5.9
5	창의적 내용 및 방법	열린교육, 다양한 수업방식,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개방적, 민주적 교사의 수업방식, 발표기회 풍부, 발표수업 위주, 실험실습 등 창의적 수업	41	5.8
6	고등교육	대학수준 이상의 교육, 유학, 박사, 엘리트 교육, 명문대학	38	5.4
7	특정과목우수	예체능 과목 우수, 수학/과학 과목 우수, 본인이 흥미를 가지는 과목만 우수, 관심과목만 우수,	34	4.8
8	낮은 성적	학업에 낮은 흥미, 공부를 싫어함, 공부를 못함	28	4.0
9	부정적 교우관계	적은 친구, 왕따, 소외, 인기가 없음, 따돌림	28	4.0
10	교사지지	훌륭한 교사의 만남, 스승의 도움, 교사와의 활발한 상호작용, 든든한 후원자	21	3.0
11	무의미	학교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학교 환경을 중시하지 않음,	19	2.7
12	평범한 학생	튀지 않는 학생,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 지극히 평범한 학생	19	2.7
13	모범적 학생	학교생활에 적응, 수업집중, 성실한 출석, 임원, 철저한 규칙 엄수,	17	2.4
14	긍정적 학교환경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공부하기 편안한 환경	16	2.3
15	높은 성적	모든 과목에서 우수, 상위권 학생	14	2.0
16	개인지도	가정교육, 개별수업, 개인교습,	14	2.0
	기타의견	열악한 학교환경, 억압, 교사포기, 자연친화, 등 기타	187	26.4
소계			707	100.0

제공(5.8%), 자립심 강조(5.4%), 자녀의 모델되기(2.5%), 독서 강조(2.2%), 학업부담 주지 않기(1.4%), 높은 교육열(1.2%) 등이 진술되었다.

창의적 인물의 학교환경

‘한국의 창의적 인물을 3명 상정하고 그 사람들의 학교환경은 어떤 특징을 지닐 것인지’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 대학생들은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하였다. 이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환경 그 자체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인물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교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으로 구분해볼 때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학교생활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일부 대학생들은 창의적 인물의 학교환경 질문에 대해 그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추정하여 답변한 것 같으며 이러한 응답들도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 본 분석에 모두 포함시켰다.

표 9의 응답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부정적(9.9%)을 제외하면 응

답의 내용들을 교우관계 관련 범주, 교육내용 및 방법 관련 범주, 교육형태 관련 범주, 성적 관련 범주로 재구성하여 분석이 가능하였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여준 ‘부적응’ 범주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취급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우관계 관련 범주는 ‘긍정적 교우관계’(9.2%)가 ‘부정적 교우관계’(4.0%)보다 더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그림 5-1 참고).

교육내용 및 방법 관련 범주는 틀에 박힌 교육과 주입식 교육, 그리고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틀에 박힌 교육내용 및 방법’(7.6%)이 ‘창의적인 교육내용 및 방법’(5.8%) 범주보다 높았다.

창의적인 인물들이 받은 교육형태 관련 범주에서 독학(5.9%)과 고등교육(5.4%)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개인지도(2.0%)를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창의적 인물의 성과와 관련된 범주에서는 특정과목에서만 우수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8%), 성적이 낮았을 것이라는 응답(4.0%)과 반대로 성적이 높았으리라는 응답(2.0%)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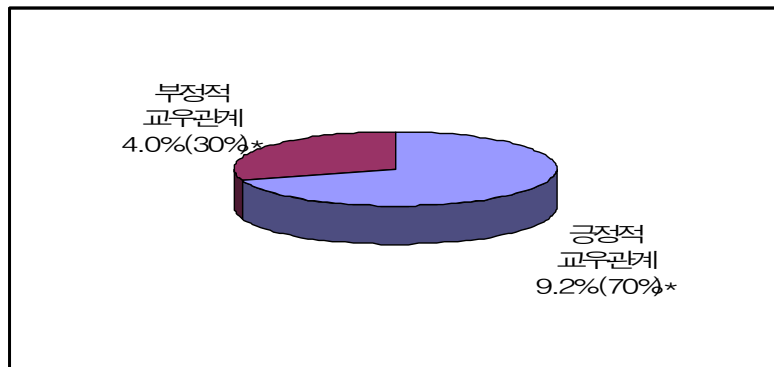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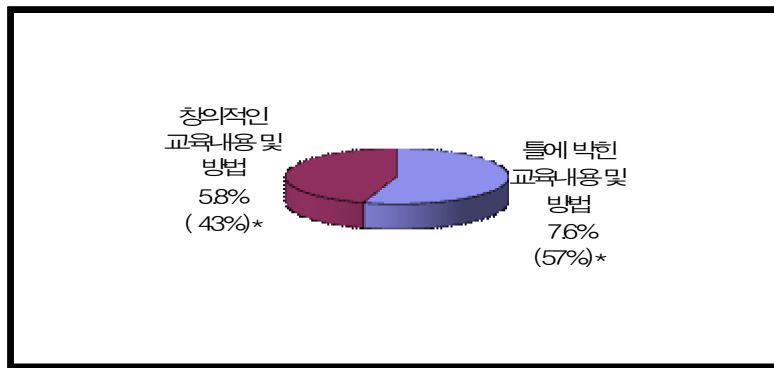


그림 5-1. 교우관계 관련 범주
(*) : 교우관계 관련범주의 합을 100%로 환산한 백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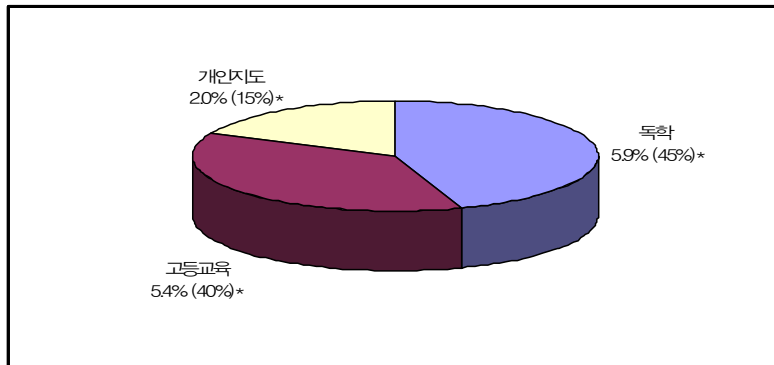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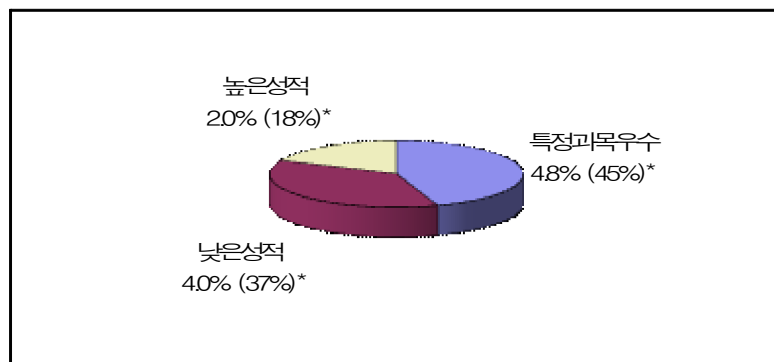


그림 5-3. 교육형태 관련 범주

(*) : 교육형태 관련 범주의 합을 100%로 환산한 백분율



로 환산한 백분율

논 의

앞서 제시한 각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적 창의성을 온고지신 즉 전통의 재창조로 생각하는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은 성은현 외(2007)와 Lubart(2003)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서양적 창의성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서양과 국내에서 연구되어 온 창의성의 대표적인 요소들은 독창성과 융통성 및 유창성, 정교성 등의 확산적 사고력 요소와 끈기, 인내, 독자성, 개방성, 호기심 등의 성격적인 측면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의 환경 측면이 강조되어 왔고 “온고지신” 등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서양과 국내의 기존 연구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설문조사결과 온고지신을 한국적 창의성의 주된 특성으로 언급하였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한국문화에서 한국인의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것을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창의성 측정과 교육에 온고지신 요인을 반영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창의성과 상반되는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는 “모방”을 창의성이라고 본 응답도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살펴볼 때 모방한 것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기존 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으로서 Lubart(2003)가 언급한 수정과 적용의 창의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적 창의성을 한마

디로 표현하는 응답에 주입식 교육, 평준화 교육, 창의성을 무시하는 교육적 요인들과 고착된 사회분위기, 관료주의 성향, 경직된 사회 분위기, 개방성 부족 등의 사회적 요인들을 진술하면서 “창의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8.1%)을 한 사람들이 네 번째로 많았다는 것도 우리사회가 창의성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많음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응답들은 서양의 창의성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게 융통/융용/변환, 독창성, 꾸준한 노력, 탈고정관념, 예술 심미 선호 등이 언급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부분 대학생들이 “보통”이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계열인 예능계열 학생들이 이공계열과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창의성을 더 많이 발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창의성을 더 많이 발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Torrance(1979)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창의성이 우수했음을 발표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하겠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욱 독자적이고 개방적이고 호기심을 발휘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이 교육을 포함한 사회제도의 측면의 이유를 들었다. 예를 들어 입시 위주교육, 획일화된 교육, 주입식 교육, 개성

경시교육, 교육환경, 암기식 교육, 수직적 교육, 반복학습, 수능시험제도, 수동적 교육, 체험학습부족, 다양성과 자율성을 통제하는 교육 등 교육제도의 문제(25.9%)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억압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융통성 없이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고정관념이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하였으며, 격식과 형식에 얽매이고 타인을 의식하는 분위기, 규칙과 순응을 강조하는 분위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보수주의와 관습 강조, 창의성을 영똥하다고 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 등 사회제도적인 이유가 많이 지적되었다. 이에 비해 놀기 좋아하고 어려운 것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부족, 우유부단과 자신감 부족 등의 개인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주로 개인적인 요인보다 교육을 포함한 사회제도적인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지적한 교육을 포함한 사회제도적 저해 요인들의 내용은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들(Gardner & Moran, 1990; Kim, 2005; Kim & Michael, 1995; Michel & Dudek, 1991; Wollam, 1992)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미국의 교육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으로서 기계적 학습과 반복적인 암기식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과 경직된 교육 관료 조직과 형식적인 교육행정 체제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다섯째, 한국에서 창의적인 인물들의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를 추론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두 요인은 가난한 가정(15.2%)과 부유한 가정(11.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요인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지닌다. 이렇게 극단적인 두 유형의 응답이 함

께 거론된 이유는 응답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창의성이 높은 사람’을 생각하게 한 것이 아니고 창의성이 높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3명 지명해보게 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지명된 3명의 구체적 인물의 가정환경이 극단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환경과 가난한 환경의 양극성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쳤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면, 부유한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풍부하여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가난한 가정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려는 의지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후속연구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가난한 배경을 가진 창의적인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 다음으로는 화목한 분위기, 민주적인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 지지 라는 가정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창의적인 인물의 가정환경이라고 많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Hills(1987)가 제안한 압력, 불안, 완벽의 분위기로 이루어진 가족 즉 ‘온실(hothousing) 가족’의 부모들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대를 강요함으로써 창의적 잠재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Hyson et al., 1991)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엄격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창의성이 결여되는 반면에 융통성이 높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창의성은 매우 높았으며(Gardner & Moran, 1990), 창의적인 아동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행동에 관심이 많고, 자녀의 판단에 믿음을 보여주며, 엄격함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율성을 더 존중해 주고, 변경이 불가능한 규칙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Dacey & Packer, 1992)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많은 빈도는 아니나 권위적인 분위기라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는 동양권 문화에 보편화된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창의적인 인물을 생각하고 응답자가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자녀교육에 주안점을 둔 결과들을 살펴볼 때 다양한 경험제공과 자녀의 모델되기, 독서 강조 등 풍부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주는 교육방법이 언급되었다. 이는 아동에게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가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역할 모델을 보여줌(Walberg, Rasher, & Parkerson, 1979; Wright, 1987)과 동시에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과 함께 심화 확대된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창의성을 조장하는 환경임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자립심 강조와 학업부담주지 않기 등의 요인을 통해서 창의적인 가정환경은 탐구하고 실험하고 결정하는데 자유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Harrington, Block, & Block, 1987; MacKinnon, 1961)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창의적인 인물들의 학교환경이 어떠한지를 추론하게 한 결과 학교생활과 학교 환경에 대한 응답이 함께 나왔다. 이는 인적환경과 물적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학교환경과 함께 학교생활을 진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의 응답을 분석해 보면 부적응, 교우관계,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형태, 성적 등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중 학교생활에의 부적응 요인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부적응의 이유는 창의적인 특성을 가진 학생이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엉뚱한 질문을 하였을 때 권위적인 교사가

지적을 하거나 문제아로 낙인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고(Sternberg & Grigorenko, 1997), 독특한 행동이나 강한 개성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Amabile, 1989, 1996). 학교생활에 부적응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이 긍정적 교우관계였다. 교우관계 요인만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교우관계(70%)가 부정적인 교우관계(30%)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괴팍하여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양극적인 응답이 나온 이유는 가정환경 경우와 동일하게 응답자들이 그들이 상정한 창의적 인물의 교우관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측면과 관련한 응답들만을 놓고 살펴볼 때 틀에 박힌, 주입식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한 응답이 57%로 많았지만 대화와 토론이 자유롭고 학생들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및 방법도 43%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획일적인 우리의 교육여건에서도 창의적 인물들이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 창의적인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을 접한 창의적 인물도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Kim, 2005; Kim & Michael, 1995; Wollam, 1992), 창의적 문제해결을 격려하는 다양한 교수방법(John-Steiner, 1997) 및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창의적 교육내용 및 방법이 창의성에 중요함을 대학생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창의적 인물의 교육 형태에서 독

학, 고등교육(유학), 개인지도가 언급되었다. 이는 한국의 창의적 인물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얻는 경험과는 다른 형태의 경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인 인물들에게 학교환경이 무의미하였음을 지적하는 응답(2.7%)과 함께 학교교육이 너무 경직되어 학생들의 창의성이 억제될 수 있다는 Sternberg와 Lubart(1995)의 연구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성적의 요소도 거론되었는데 특정과목만 우수했을 것이라는 응답과 성적이 낮았을 것이라는 응답 그리고 반대로 성적이 높았을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그 중 특정과목을 잘 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창의적 인물들이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몰입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창의성의 영역 특수성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적 창의성과 창의성 저해요인 그리고 한국의 창의적 인물의 가정 및 학교 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서양의 창의성과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개념인 ‘온고지신’을 한국적 창의성의 핵심개념으로 발견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문화에서 한국인의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것을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창의성 측정과 교육에 온고지신 요인을 반영해야한다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한국 대학생들이 능력 등의 개인적인 측면보다 교육을 포함한 사회제도적 측면을 창의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했

던 결과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융통성 없고 경직된 사회 풍토가 시급히 변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셋째, 한국적 창의적 인물은 가난한 가정에서도, 부유한 가정에서도 태어나며 이러한 가정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지지받는 분위기를 갖는다. 창의적 인물은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학교환경이 특히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학교, 틀에 박힌 주입식 수업일 때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해준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 전공별로는 인문계열에 편중되어 있는 표집 대상을 선정하여 전집 대학생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한계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나와서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할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창의적인 사람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질적 분석하고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성은현 (2006a). 동서양의 창의성 차이 고찰: 창의적 문화와 환경, 성격, 사고, 산물을 중심으로. *영재와 영재교육*, 5(1), pp. 45-62.
- 성은현 (2006b). 문화와 창의성. 인하대학교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아시아 교육의 기적-가정, 학교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의 아동 발달.
- 성은현, 하주현, 류형선, 한순미, 이정규, 한윤영 (2007).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한국

- 과 미국의 암묵적 창의성에 대한 비교 연구. *영재교육연구*, 17(2), pp.365-391.
- 정범모 (2001). *창의력이란 - 그 실체와 육성*. 교육과학사
- 한순미, 김 선, 박숙희, 이경화, 성은현 (2005). *창의성-사람/환경/전략*. 서울: 학지사.
- 한순미(2006). 환경은 창의성을 어떻게 조형하는가? *영재와 영재교육*, 5(2), pp.167-188.
- Amabile, T. (1983).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New York: Springer-Verlag.
- Amabile, T. (1989). *Growing up creative: Nurturing a lifetime of creativity*. Buffalo, NY: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Press.
- Amabile, T. (1996). *Creativity in context*. Boulder, CO: Westview Press.
- Barron, F. (1969). *Creative person and creative proces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Chao, R. K. (1993). *East and West: Concepts of the self as reflected in mothers' reports of their child-rearing*,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ropley, A. J. (1990). Creativity and mental health in everyday life. *Creativity Research Journal*, 3, 167-178.
- Cropley, A. J. (2006). Creativity: A Social approach. *Roeper Review*, 28(3), 125-130.
- Csiks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 Collins.
- Csikszentmihalyi, M. (1999). Implications of a systems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 (pp.313-33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sikszentmihalyi, M., Rathunde, K., & Whalen, S. (1993). *Talented teenagers: The roots of success and failur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cey, J., & Packer, A. (1992). *The nurturing parent: How to raise creative, loving, responsible children*. New York: Simon & Schuster.
- Dacey, J., & Lennon, K. (1998). *Understanding creativit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Eysenck, H. (1995). *Genius: The natural history of creativity*. Great Brit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dner, H. (1991). *The unschooled mind: How children think and how schools should teach*.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1993). *Creating Minds*. New York: Harper Collins.
- Gardner, H. (1997a). *Extraordinary mind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K., & Moran, J. (1990).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and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3(4), 281-286.
- Grzeskowiak, S. (1996). Curiosity in small children and the childrearing style of their mothers. In A. Cropley & D. Dehn (Eds.), *Fostering the growth of high ability: European perspectives*. Norwood, NJ:Ablex.
- Hallman, R. (1967). Techniques of creative teaching.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3), 325-330.
- Harrington., D. M., Block, J. W., & Block, J. (1987). Testing aspects of Carl Rogers' theory of creative environment: Child rearing antecedents of creative potential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pp.1-38). Cambridge,

-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lls, T.W. (1987). Children in the fast lane: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policy and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 265-273
- Hyson, M. C., Hirsh-Pasek, K., Rescorla, L., Cone, J., Martell-Boinske, L. (1991). Ingredients of parental "pressure"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47-365.
- John-Steiner, B. (1997). *Notebooks of the mind: Explorations of thinking* (Rev. ed.).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K.H. (2005). Learning from each other: Creativity in East Asian and American Education.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7(4), 337-347.
- Kim, J. & Michael, W.B. (1995). The relationship of creativity measures to school achievement and to preferred learning and thinking style in a sampl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5, 60-74.
- Kyung Hee Kim (2005). Learning From Each Other: Creativity in East Asian and American Education. *Creative Research Journal*, 17(3).
- Lee, J.K. (1999). Historic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Korea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al Review*, 32, 7-23.
- Lubart, T. I. (1999). Creativity across cultures. In R. J. Sternberg(Ed.)(1999). *Handbook of creativity*.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bart, T. (2003). *Psychologie de la Créativité*. Paris: Armand Colin.
- Ludwig, A. M. (1992). Culture and creativit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6(3), 454-469.
- MacKinnon, D. (1961). The nature and nurture of creative potential. *Psychologist*, 17, 484-495
- Maduro, R. (1976). *Artistic creativity in a Brahmin painter community*. Research monograph 14. Berkeley: Center for South and Southeast Asia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 Mendecka, G. (1996). Attitudes of parents and development of creativity. In A. Cropley & D. Dehn (Eds.), *Fostering the growth of high ability: European perspectives*. Norwood, NJ: Ablex.
- Michel, M., & Dudek, S. (1991).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4(3), 281-286.
- Millward, L. J., & Freeman, H. (2002). Role expectations as constraints to innovation: The case of female manager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4, 93-109.
- Moustakis, C. E. (1977). *Creative life*. New York: Van Nostrand.
- Ng, A. K. (2003). A Cultural Model of Creative and Conforming Behavior, *Creativity Research Journal*, Vol. 15 Issue 2&3, 223-233.
- Rhodes, M. (1961). An analysis of creativity. *Phi Delta Kappan*, 42, 305-310.
- Rudowicz, E. (2003). Creativity and culture: a two way interac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7(3)
- Sternberg, R. J. (198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9(3), 607-627.
- Sternberg, R., & Grigorenko, E. (1997). Are cognitive styles still in style? *American Psychologist*, 52(7), 700-712.

- Sternberg, R. J., Kaufman, J. C., Pretz, J. E. (2002). *The Creativity Conundrum*. Psychology Press, New York·London·Brighton.
- Sternberg, R., & Lubart, T. (1995). *Defying the crowd: Cultivating creativity in a culture of conformity*. New York: Free Press.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6). Investing in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July.
- Torrance, E. P. (1968).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fourth grade slump in creativity. *Gifted Child Quarterly*, 12, 195-199.
- Torrance, E. P. (1995). The beyonders. In *Why fly? A philosophy of creativity*. Norwood, NJ: Ablex.
- Treffinger, D. J., Ripple, R. E., & Dacey, J. S. (1968). Teacher's attitudes toward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4), 242-248.
- Walberg, H., Rasher, S., & Parkerson, J. (1979) Childhood eminenc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3, 225-231
- Winner, E. (1996). *Gifted children: Myths and realities*. New York: Basic Books.
- Wollam, J. (1992). Equality versus excellence: The South Korean dilemma in gifted education. *Roeper Review*, 14, 212-217.
- Wright, C. (1987). Nurturing creative potential: *An interactive model for home and school*. *Creative Child and Adult Quarterly*, 12(1), 31-38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09. 21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12. 01

College students' implicit theory of Korean creativity and creative environment

Eun-Hyun Sung **SoonMi Han** **JooHyun Ha** **JeongKyu Lee**
Hoseo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Konyang University KEDI

HyungSeon Ryu **YunYung Han** **Byung-Gee Bak**
Sungkyunkwan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onbuk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llege students' implicit theory of Korean creativ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degree to which the students exploit the creativity, and the obstacles for them to exploit the creativity.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ir implicit knowledge of Korean creative environ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implicit knowledge of Korean creativity could be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key words: 'flexibility', 'application', 'transformation', 'originality', 'perseverance', 'not being stereotyped', 'esthetic flavor' and 'understanding-new-by-exploring-old'. Students thought themselves to be more or less creative. Students in art and physical education, and male students estimated themselves more creative than other discipline and female. They thought that socio-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educational system focused on the college entrance test are the most serious obstacles against creativity. About half of the students thought the creative persons would have been raised in poor family whereas other students thought differently. The home environment of the creative person was thought to be characterized by the words such as democratic, free and encouraging. Creative persons were thought to be maladaptive school life, but good at peer relations.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pioneer research which suggest a model of Korean creativity.

Key words : Korean creativity, implicit theory, hom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